

## 예배 콘텐츠 개발을 통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선교전략

최태수\*

### 요약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등의 변화의 물결위에 있다. 이런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춘 채 위 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신세대 집단의 교회인구 감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고 시대에 한국교회 성장과 선교를 위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콘텐츠 개발을 통해 신세대 젊은이들의 선교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Mission Strategy through Developing Worship Contents in Multimedia age

Tae-Soo Choi\*

### Abstract

Today, Korean Society have stood on the transformation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Under these radical changes, the Korean church faced the crisis of decline. In fact, decreasing population of new generation in the church who lead digital age makes the future of Korean church look black. This research tried to suggest mission strategy for new generation through develop worship contents using multimedia.

Key words : 멀티미디어, 영상예배, 신세대, 선교

### 1. 서론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고숙화, 전문화, 다원화, 조직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현대세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는 말일 것이다. 이 변화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이 다양하고도 신속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다양하고도 신속한 변화는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람조차도 그러한 변화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교회를 포함하여 사회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는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회변화에 민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1].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 역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 이성희는 『미래사회와 미래교회』란 책에서 미래교회는 더 이상 대형교회를 뜻하는

메가(mega)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교회, 즉 스스로 변화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구조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목회지도력에 있어서의 변화 즉 목회자의 마음, 사고,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흐름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2].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장둔화 현상을 보이더니 이제는 그 현상이 더 쇠퇴하여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교회의 교인 감소현상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에 맞는 적절한 선교 방법 부재를 들 수 있다. 지금의 시대는 디지털로 대변되는 정보화 시대다. 엘빈 토플러(A. Toffler)는 미래의 변화상황을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정보화시대, 멀티미디어시대가 되었다[3].

장성배는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

\* 제일저자(First Author) : 최태수  
접수일 : 2005년 2월 16일, 완료일 : 2005년 2월 24일  
\*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ctsworld@nsu.ac.kr

\* 본 논문은 2004년 남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회적 강요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4]. 멀티미디어를 모르면 세계를 모르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처럼 세계에 대한 정보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상식에 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삶의 다양한 기능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까지 불러 오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 역시 멀티미디어 시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목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의 선교를 위해 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예배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한다.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 선교를 위해 효과적인 예배 콘텐츠 개발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2. 멀티미디어 시대의 특징

미디어란 흔히 라디오, TV, 신문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컴퓨터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의 의미와 내용을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매체, 즉 문자, 기호, 음성, 음악, 정지화상 및 동화상 등을 미디어라 정의하고 있다. Gary G. Bitter는 멀티미디어란 종래의 단일 미디어에서 처리하고 통신하였던 문자, 기호 또는 음성의 세계에 정지화상과 동화상을 도입하여 이를 기존의 미디어와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토록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데스크 톱, 비디오나 컴퓨터 화상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를 시사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란 개념은 컴퓨터와 비디오가 디지털 방식에 의해 융합되어 나타나는 소리나 영상 또는 소리나 영상을 포함한 문자를 의미한다[5].

멀티미디어는 완전한 백지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 이동 통신, AV 가전등이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동영상 처리나 정지화상 처리 또는 음성처리와 같은 기술의 발달이 컴퓨터, 통신 및 AV 가전이 통합된 제품, 또는 시스템으로 나타난 것이다. 멀티미디어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이한 분야들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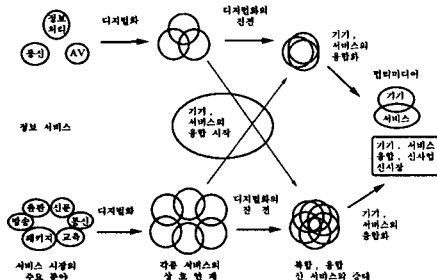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본질 (전자신문 : 1993. 1. 4.)

멀티미디어를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정보교환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 종이와 문자매체가 주요한 수단이었던 때와는 달리,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정지화상, 동화상, 음성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는 정보혁명으로 연결되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이 정보화 시대는 전 분야의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1세기는 기존의 산업사회의 특징인 규격화, 동시화, 중앙집권화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고,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들어 온 수많은 데이터를 정보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7].

### 2.1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가져왔다.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교회내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김유식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단순한 의사전달에서 복합적인 의사전달 과정으로 진화, 발전한다고 한다[8].

표 1. 미디어의 발달과정

구 분	시 대	커뮤니케이션 수단
~ 1960	프린트 미디어시대	문자 (신문, 책, 잡지)
1960 ~ 1970	라디오 방송시대	소리 (스피커, 라디오, 전화)
1970 ~ 1980	이미지 미디어시대	소리와 이미지(TV, 영화)
1980 ~ 1990	새로운 미디어시대	케이블 TV
1990 ~ 현재	멀티미디어시대	오디오+비디오+컴퓨터

위의 도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60년대 책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던 프린트시대에서 70년대 라디오와 전화 같은 음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라디오 시대로 발전하며 80년대 TV나 영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미지시대를 지나 90년대 비디오와 컴퓨터 그래픽이 조화를 이루는 멀티미디어 시대로 발전한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미디어가 변할 때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변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변화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유대교가 문자(文字) 미디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천 년 이상이나 긴 세월이 걸렸고, 개신교가 필사본(必事本)문서 미디어로부터 인쇄 미디어로 전환하기까지 역시 수백년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인쇄 미디어가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 왔으나 현재 멀티미디어의 시대에서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그 수용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 현재 교회는 교육, 목회, 선교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멀티미디어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의 신앙 활동 전달 매체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 2.2 신세대의 특징

디지털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의 신세대는 빠른 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변화 속에서 기존세대와는 구별된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다[9].

대체적으로 신세대는 1960년대 중반과 1980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정의되며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중무장한 신세대들을 N세대로 명명한 이후, C세대, M세대, L세대 X 세대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맞벌이 가정환경 시대에서 자라났고 집에서 혼자 놀아야하는 이들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들이 개인적이고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미디어를 좋아하며 정보에 빠른 영향을 받는 세대가 되었다. 신세대는 마니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스포츠, 컴퓨터통신,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춤등 어느 한가지에라도 비쳐야 직성이 풀려 평안을 얻고 관심 영역이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세대를 지칭하는 M세대는 이동통신세대(Mobile Generation)라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PDA 같은 최첨단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세대를 말한다. 휴대전화로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속도가 자판을 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다고 하여 엄지족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작은 정보량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대처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신세대는 일을 하기위해 산다기보다는 살기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보다는 삶에 더 가치를 둔다[10].

신세대는 교회를 따분한 곳으로 여기며 기독교의 종교행위보다는 뉴 에이지 같은 영혼안식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구전(口傳)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보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선 이들의 언어인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 3. 멀티미디어시대의 예배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새로운 세대들은 통신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공통된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빠른 시간 안에 언제, 어디서든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현대교회와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멀티미디어와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예배에 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미국의 새들백 교회나 월로우크릭 교회 그리고 킹햄스버그 교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들 교회의 공통점은 많은 신세대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콘텐츠 개발에 있다.

오늘날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신자

들에게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윌리엄 포어는 현대의 교회는 "문화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밝히면서 문화전쟁에 임한 현대 교회의 대사회적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1] 그는 문화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는 신세대 젊은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민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예배에 참석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장애요소가 발생한다. 하나는 복음 자체가 주는 장애요소이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갖는 독특한 용어, 행동, 분위기, 음악 등이다. 첫 번째 장애요소는 복음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장애 요소는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이다. 멀티미디어 예배는 바로 이 두 번째의 장애요소를 가능한 줄여서 민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예배가 전혀 생소한 의식으로 되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예배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현대의 문화적 특징에 맞도록 예배를 변화시킨 것이다. 예배 전체의 템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예배 요소에 다양한 콘텐츠를 첨가하여 예배에 생동감을 주고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배의 시작 찬송은 대부분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현대 감각의 음악을 사용한다. 7-8인조의 밴드(피아노, 키보드, 드럼, 나팔악기 등을 구성)가 반주하고, 신나게 예배를 시작한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교회 예배의 인상이 축제적 예배 분위기로 느끼게 한다. 특송과 마지막 찬송은 공연형태의 찬송으로 설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의 곡을 선택한다. 모두가 현대적 감각의 음악으로 불신자 또는 신세대의 문화감각에 맞는 찬송을 사용하며 가사 내용도 되도록이면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난해한 단어들은 피하고 쉬운 언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설교는 불신자들들을 수 있는 쉬운 설교를 하며 가급적 설교내용은 일상생활의 적용 부분이 강조된 내용이다.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예배 인도자들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를 인도한다. 비교적 빠른 찬송을 주로 하여 경쾌하게 예배 진행을 하며 사용언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신학적 단어보다는 되도록 평이한 단어를 사용한다.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불신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구성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이러한 예배의 콘텐츠개발은 문화적 이질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 콘텐츠 개발에서 주의할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예배 콘텐츠개발을 통해 불신자나 신세대에게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예배콘텐츠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변해선 안된다. 즉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변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 3.1 예배컨텐츠 개발의 신학적 의미

교회가 목회에서 효과적으로 미디어 사용을 하려면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 근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Imagodei)대로 지으실 때 인간에게 그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적이거나 추가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화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씀들을 통해 찾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성경은 바로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구약에서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교회는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특별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대화에서 상징을 사용하신다. 상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인간은 상징을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자연과의 대화도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깨졌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단절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능동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속으로 친히 오셔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인간과 대화하시고 그분

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셨고 신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들안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육신(Incarnation)은 우리에게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기위해 인간 속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사용하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사도바울의 선교방법은 문화를 통한 선교 방법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이방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도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전략은 한국교회가 추구해야할 모습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세대는 멀티미디어라는 디지털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도 이들에게 이들의 언어로 선교하기 위해선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처럼 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멀티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한다.

### 3.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의 실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의 특징은 기획된 예배이다.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은 단절됨이 없이 진행되며 예배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지루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해야한다. 이런 매끄러운 진행은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매끄럽고 깔끔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마치 TV방송을 준비하듯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예배를 위한 영상 시스템 구성도이다. 영상을 통한 예배의 극대화를 위해선 카메라와 믹서 PC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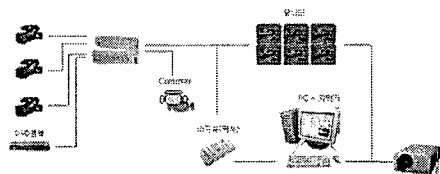


그림 2. 영상시스템구성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방송용 큐시트(Cue Shee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13] 큐시트에 예배순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각순서의 시간, 출연자, 제목, 음향정보, 무대 설치등 모든 정보를 한 장의 양식에

기록하여 예배흐름이 빈틈이 없도록 한다. 큐시트 작성의 장점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예배에서 생길 수 있는 음향, 조명, 영상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예배흐름을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 회중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예배에 몰입할 수 있다.

표2의 큐 시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고 다양한 예배 콘텐츠를 사용하여 신세대 젊은이들이 예배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예배 시작 2분전부터 오케스트라가 경음악을 연주하고 정시가 되면 찬양팀들에 의하여 특별찬양이 시작된다. 찬양 대신 가끔은 독창 또는 특별한 악기를 예들 들어서 피아노, 색소폰 또는 플룻 독주가 연주되기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은 밝고 생기 있는 젊은 음악들이며 주로 찬송가를 편곡한 것이 좋다.

표 2.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예배의 큐시트(Cue Sheet)[14]

2001.12.25 예배연도차 일정분 특사 프로그램 감독 조영민 목사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한 통합 큐 시트 (Cue Sheet)			합창터 & 비디오 감동호 조명 최영규, 오디오 박환재 카메라 조준기, 최영민, 안영우				
예배 5분 전 집권사팀			예배예차된 예배 시간 유의사항						
1. 율행(유천,부선) 피용질권 2. 비디오 녹화 시작 후 일단 정지 3. 노년회 50대에 서서히 마음을 끌고 4. 한나네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한다			1. 기도시간 눈을 뜨고 기도한다. 2. 합창사 및 팀(특사)이 나올 때까지 3. 예배 이외 것에는 절대 관심을 두지 마라. 4. 비공식 즉시 대기하라.						
NO	행위 시각	행위 시각	내 용	출연자	음향	무대	조명	영상 컴퓨터	비디오 소품
1	2분 전	개회 음악	'즐거움 크리스마스' 시작(61-마지막 마디)	EL, 오케 스트라		무대 OFF	강조 1,2		
2	07:00	피중 찬양	'찬송율사(새로) (1-1원주 2원합한다) '기도할 수 있네' 2번 '예수님 만 마음에 잠겨' (찬송 261장)	피중 단 이 이 제 비 결 정	피중 본 제 가 리	무대 F1-5 ON	스크린 가사	10개	
3	02:30 09:30	기도	대표기도	오소연		중앙 ON		Main	
4	01:30 11:00	찬양	다같이 찬양	김정훈 목사	키론 1	피중 OFF		Main	
5	03:30 13:30	특별 찬양	'사랑하세'	이재 크리스		무대 F1-8 가사	모니터 가사	10개 F/R	
6	07:00 21:30	연극	'본문은 그날 이후'	프라이어		대본 참고		무선 2개	향타 및 소품
7	03:30 25:00	찬양	'그를 향하여'	이재 MR	키론 1	통연	모니터 가사	랜드 무선	
8	02:00 27:00	성경 봉독	문론:디모데전서2:1-7	박영 목사		피중 중요 본문	스크린 본문	Main	
9	30:00 57:00	절교	'나라를 위한 기도'	김영 목사		피중 중요 ON	스크린 절교	Main	
10	3:00 60:00	찬송	'할 수 있다 하신 이'	김영 이재현		무대 F1-1 가사	가사	2개 F1,2	
11	1:00 61:00		봉헌기도	김정훈 목사		중앙 ON		Main	
12	03:30 64:00	헌금	'크리스마스 헌송'	김정훈 이재도		무대 F1-1 가사	스크린 가사	2개 F1,2	
13	04:00 70:00	절교 예외	참고 및 폐회 기도	박영 목사		중앙	스크린 절교	Main	
14	02:00 72:00	음악	'즐거움 크리스마스' 시작 1마디-끝까지	EL, 오케 스트라					

이어서 예배팀 목사가 나와 회중찬송 두 곡을 연속 인도한다. 이때 중앙스크린은 찬송가 가사를 비추고 카메라는 강단과 회중을 번갈아 잡는다. 찬송 직후 예배위원이 기도 인도를 한다. 묵회기도는 약 2-3분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담임목사가 나와서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환영카드를 기록해 달라는 간단한 광고를 하고 모두 일어나 주위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하는 환영시간을 가진다. 이때 불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소개되진 않지만 기존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찬양 팀의 찬양 반주가 시작되면 회중들은 착석하고 주제와 관련된 특별찬양이 이어진다. 찬양이 끝나면서 무대가 정리되고 예배당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드라마가 시작된다. 절교 주제와 연관 있는 약7-8분짜리 드라마로 절교의 내용을 소개하며 소수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드라마가 끝나면 독창자가 드라마와 절교를 연결해 주는 감동적인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절교자가 나온다. 쉽고 논리적이며 예화가 하나 정도 포함된 강해절교 원칙에 따른 절교가 약 30분 정도 이어지며 절교 아우트라인과 인용 성구들은 전면 및 TV 모니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절교 후 초청시간은 없으며 회중들로 절교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중찬송을 한 곡 준비한다.

이어서 담임목사의 헌금축복기도가 끝난 후, 헌금을 하고 헌금이 진행되는 동안 간단하고 밝고 재미있는 음악이 연주된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광고가 있으며 폐회기도 후 개회 밴드음악을 다시 한번 연주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친다.

#### 4. 결론

현재의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한국교회의 여러가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복음의 반열에 우뚝 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일어 날 것인가. 앞에서 밝혔듯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며 살고 있는 신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신세대를 교회로 인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변혁이 바로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멀티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대적인 교회며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멀티미디어 예배로의 전환은 차질 주체를 상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늘의 변화된 새로운 대중매체인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교회에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교회의 멀티미디어화는 교회의 형식적 변화뿐만 아니라 예배의 새로운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멀티미디어 시대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멀티미디어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멀티미디어 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축소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이다. 교회는 멀티미디어의 방향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

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어 이 시대를 위한 선교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 멀티미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사용하여 침체돼 있는 한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회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선교전략이다. 예배의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교회교육 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회에서도 콘텐츠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한국교회가 멀티미디어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올 것이다.

**최 태 수**



1990 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  
(신학사)  
1996 년 Wesley Divinity School  
(복회학석사)  
1998 년 Southeast Graduate  
Association of Theology (신학사)  
2001 년 United Theological  
Seminary(선교학박사)  
2001 년 - 2002 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  
2003 년 - 현재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문화인류학, 교회성장, 세계관

**참 고 문 헌**

[1] 조성중, 목회자 리더십론, 성광문화사, 서울, 1997. pp15-16  
 [2]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96. pp23-26  
 [3]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NY, 1980. pp25-26  
 [4] 장성배, 교회·문화 그리고 사이버페이스,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2001. p129  
 [5] Gary G. Bitter, Macmillan Encyclopedia of Computer,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Y, 1992. p683  
 [6] 최인식, 미래교회 미래신학,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96. p39  
 [7]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NY, 1980, p30  
 [8] 김유식, 교회와 멀티미디어 시대 목회, 한국신학연구소, 서울, 1996. pp21-25  
 [9] William F. Fore, "Television and Religion, Augsburg Publishing House," MN,1987 pp24-25  
 [10] 최인식, 예수와 사이버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서울, 2001. p129  
 [11] William F. Fore, p.102  
 [12] 문시영·최태수, e-시대의 기독교, 북코리아, 서울, 2004, p224  
 [13] Len Wilson, The wired church: Making Media Ministry, Abingdon press, TN, 1999. p96  
 [14] 노인화, 열리예배를 위한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메시지, 요단출판사, 서울 1999. p52